

Research Center

한투의 아침

■ Today's Focus

다시 등장한 통화정책 이슈

■ 기업/산업분석

아시아나항공

■ 경제/투자전략/글로벌자산관리

투자전략 Note: [공매도, 수급] 양날의 검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에스원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삼양패키징 외 5개 종목

■ 국내외 금융시장 및 수급 동향



투자전략 | 박소연
해외주식 | 백찬규
해외채권 | 안재균

시황분석 | 김대준
신흥국·원자재 | 서태종
경제분석 | 박정우

계량분석 | 안혁
중국시장 | 최설화
채권분석 | 오창섭

스몰캡전략 | 정훈석
베트남시장 | 이소연
크레딧분석 | 김기명

유동성분석 | 송승연
글로벌ETF | 배호진

자산배분전략 | 정현종
글로벌기업 | 정희석

다시 등장한 통화정책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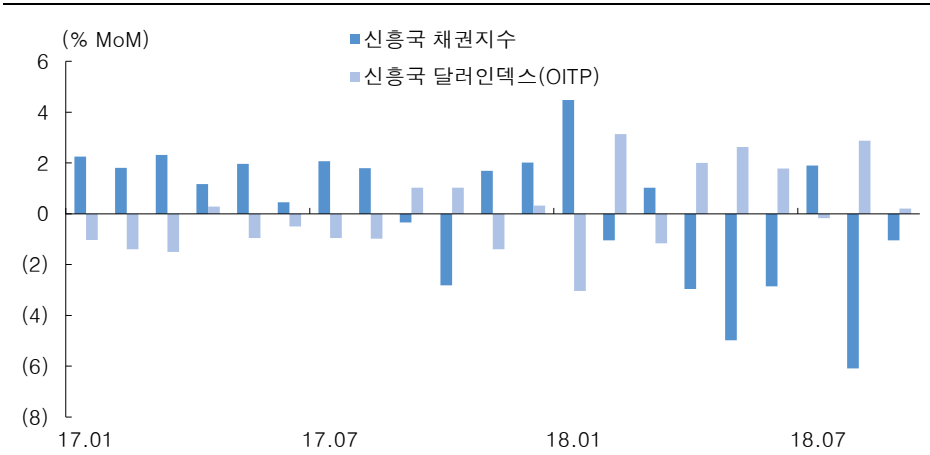
견고한 미국 고용지표로 9월 FOMC 경계 확대. 이는 신흥국 채권 약세 요인 통화정책 변경할 만큼 유로존 내 경기 여건 변화 없어 기존 정책 유지할 전망
물가 상승 압력이 가시화될 내년 2분기 이후 ECB 기준금리 인상 논의 예상

9월 FOMC 전까지 신흥국 채권시장 약세 흐름 지속 전망

9월에도 신흥국 채권시장은 부진하다. 8월 6.1% 하락한 신흥국 채권지수(JP모건 GBI-EM Div)는 9월 -1.5%(10일 증가 기준)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8월 중순 이후 부각된 터키의 금융시장 혼란이 신흥국 채권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게다가 미국의 견고한 성장세에 따른 강 달러 우려가 신흥국 채권의 약세를 심화시켰다. 이번 주부터는 글로벌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부각될 수 있는 구간이다. 통화정책 이벤트가 신흥국 채권시장에 미칠 영향력을 점검할 시점이다.

금주 ECB 회의에서는 기존의 정책 기조를 재확인할 전망이다. 연말 자산매입 종료 및 내년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방침을 수정할 만큼 경기 여건의 변화는 없었다. 통화정책회의 결과로 인한 유로화 강세 기대가 낮아 달러 흐름은 보합이 예상된다. ECB 회의가 신흥국 채권시장에 미칠 영향은 중립적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미국의 8월 임금 상승률이 전년 대비 2.9%를 기록하는 등 고용지표가 양호해 FOMC에 대한 경계가 높아졌다. 향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연준의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 FOMC 회의 전까지 현재의 신흥국 채권시장 약세 흐름은 좀 더 이어질 전망이다.

[그림 1] 신흥국 채권지수와 달러인덱스(OITP)



주: 18년 9월은 10일 증가 기준
자료: JP 모건, FRB,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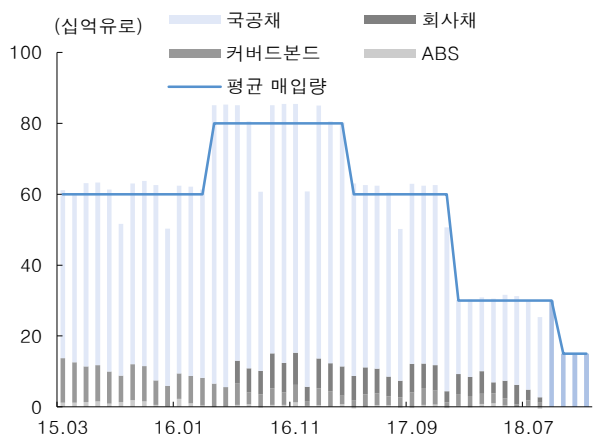
아직은 유로존 통화완화 필요. 점진적 통화정책 정상화 전환 예상

9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는 6월 발표한 연말 자산매입 종료 및 내년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 인상 계획을 재확인할 전망이다.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 상승하며 목표치에 도달했다. 그러나 핵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1% 상승에 그치고 있어 물가 상승 압력은 아직 높지 않다. 2분기 성장률도 1분기와 같은 전기 대비 0.4%에 그쳐 더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과 비교해 경기 흐름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통화완화를 유지하여 경기 흐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직은 자산매입과 마이너스 금리 등의 정책을 유지할 명분이 있다. 그러나 점차 통화정책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 전망이다. ECB는 성장률 하락과 실업률 상승 등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부터 기준금리 인하에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자 2015년 3월부터 자산매입을 시작했다. 이 순서를 감안하면 향후 통화정책 정상화는 자산매입 종료의 순서가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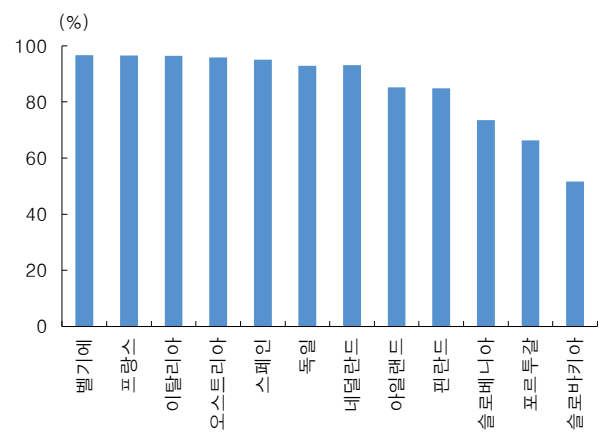
ECB의 예고대로 자산매입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양적완화 실시 이후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당히 완화되었고, 이제는 자산매입의 효과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양적완화가 시작될 당시 주요 유로존 국가들의 아웃풋 갭(실질 성장률 - 잠재 성장률)은 프랑스 -2.5%, 스페인 -4.6% 등 마이너스를 보였다. 그러나 2018년 주요 국가들의 아웃풋 갭(IMF 기준)은 플러스 전환 또는 마이너스 폭의 축소가 기대된다. 2015년 대비 경기 침체 우려는 다소 약화됐다. 지속적인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진행할 명분이 줄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ECB 자산매입 프로그램



자료: ECB, 한국투자증권

[그림 3] 국가별 자산매입률 현황(8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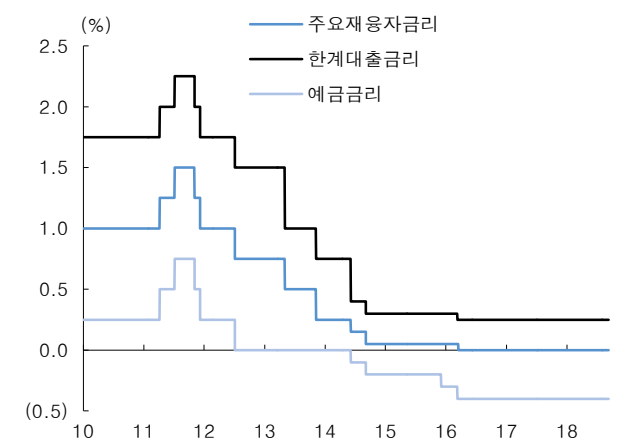


자료: ECB, 한국투자증권

양적완화 효과가 줄어들고 있는 점 역시 자산매입 프로그램 종료로 지지하는 요인이다. 국가별 매입 규모 상한선은 총 프로그램 매입에서 각국의 자본납입비율만큼 설정된다. 국가별로 매입 상한이 정해져 있어 이를 상회하는 자산매입은 불가능하다. 8월말 기준 국가별 평균 자산매입률은 약 86%다. 그중 비중이 높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93% 이상을 기록 중이다. 주요 국가들 역시 상한선에 대부분 근접해 이제는 자산매입 효과가 높지 않다. 자산매입 유지의 명분과 필요성이 모두 감소한 만큼 연말 종료 계획의 실현 가능성은 높게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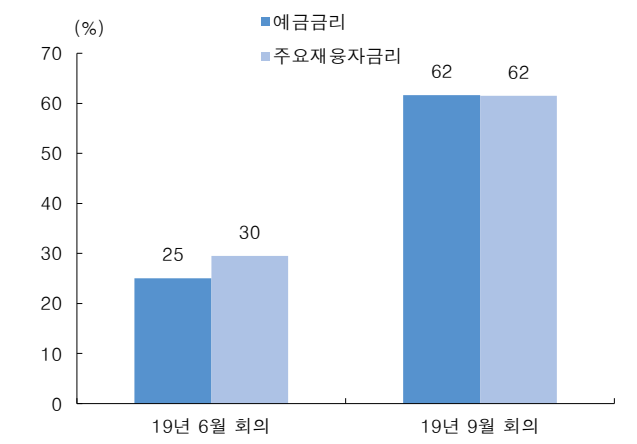
반면 낮은 기준금리 수준은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경기 침체 및 저물가 우려가 높아지던 2014년 6월 ECB는 예금금리를 -0.1%로 마이너스 수준까지 인하했다. 그럼에도 디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자 2016년 3월 예금금리 -0.4%, 주요재용자금리 0%, 한계대출금리 0.25%로 낮추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에도 핵심 소비자물가는 1%에 그치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 우려는 낮다. 금융시장 역시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하다[그림 5].

[그림 4] 기준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5] 주요 기준금리 인상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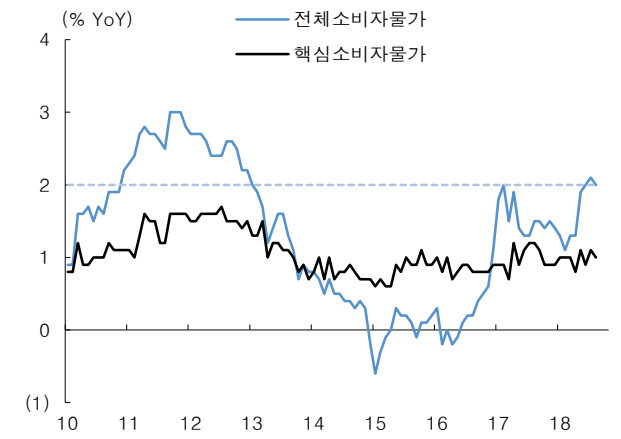


주: 2018년 9월 10일 기준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려면 물가 상승 압력이 확인되어야 한다. 6월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상회하며 중앙은행 목표에 도달했다[그림 6]. 다만 이는 에너지 가격의 높은 상승에 의한 결과였다. 4월 2.6% 올랐던 유로존 내 에너지 가격은 7월과 8월에 9% 이상 상승했다. 반면 서비스를 비롯한 다른 품목들의 가격이 안정되면서 에너지와 식료품이 제외된 핵심 소비자물가는 여전히 1% 부근에 머물러 있다. 아직은 수요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지 않아 저금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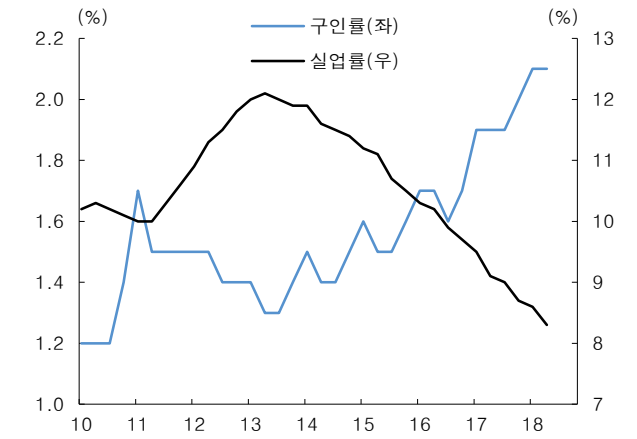
양호한 고용시장 여건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은 점차 높아질 전망이다. 7월 실업률은 8.2%로 2008년 11월 이후 최저치다. 게다가 실업률의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 해당 포지션 충원이 필요한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구인률은 2분기 2.1% 늘어나며 2004년 집계 이래 가장 높다. 기업체들의 인력난이 심하다는 방증이다. 노동시장의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업률 하락과 임금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는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으로 판단된다.

[그림 6] 전체 및 핵심 소비자물가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7] 고용시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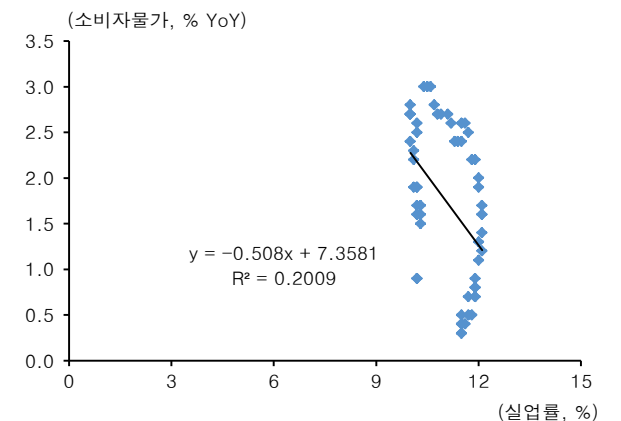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실업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필립스 곡선 기울기는 2015년 이후 보다 가팔라졌다[그림 9]. 이는 실업률이 하락할수록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2010~14년 사이 실업률과 소비자물가의 상관계수는 -0.44였지만, 2015년 이후 -0.87로 역의 관계가 강화됐다. 필립스 곡선이 다소 정상화됨에 따라 실업률 추가 하락 시 물가 상승 압력도 높아질 여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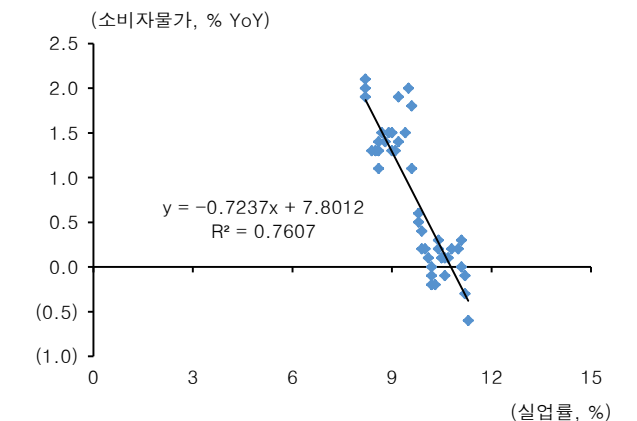
경제 성장세가 다소 회복되고 향후 물가 상승 전망을 감안하면 ECB의 통화정책 정상화 시기는 그리 멀지 않아 보인다. 주요 국가들의 아웃풋 갭이 개선되고, 추가 자산매입 효과가 감소하여 자산매입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진행 후 종료에 예상된다. 반면 여전히 낮은 핵심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을 감안하면 저금리 기조는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추가 고용시장 개선 기대로 향후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여지가 있다. 다만 실제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물가 상승세가 좀 더 가시화될 내년 2분기 이후 ECB의 기준금리 인상이 논의될 전망이다.

[그림 8] 2010~14년 필립스 곡선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9] 2015년 이후 필립스 곡선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아시아나항공(020560)

중립(유지)

원가부담이 문제, 수요는 좋다

성수기에도 여전히 쉽지 않은 경영환경

3분기에도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이 이어지고 있다. 6~8월 평균 항공유가는 전년동기대비 45% 올랐다. 항공사는 보통 유류재고를 1개월치 보유하고 있는데, 3분기 급유 단가의 상승폭은 2분기보다 가파를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은 전년동기보다는 소폭 낮은 편이나, 6월 이후 4% 상승하면서 향후 비용부담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여기에 일본노선은 8월 폭염에 이어 9월에는 태풍과 지진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못하고 있다. 7~8월 아시아나항공의 일본노선 여객비중은 14%였다. 5일부터 운항이 중단된 오사카는 3%다. 높은 수익성을 감안하면 이익비중은 이보다 높을 것이다. 그 결과 3분기 성수기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노선 포트폴리오 개선에 맞춰 항공수요는 꾸준히 증가

아시아나항공의 7~8월 국제선 유입여객수는 전년동기대비 정체됐다. 2분기 10% 증가에서 크게 둔화돼 성수기 수요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다만 이는 일본 등 근거리노선의 공급을 줄인 영향이 크다. 일본노선의 탑승률은 여름 수요의 부진에도 전년대비 향상될 것이다. 대신 3분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유럽과 중국 노선은 두자리수 매출증가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국제선 운임은 유류할증료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전년동기대비 상승하고 있다. 노선 포트폴리오의 조정에 맞춰 여객수요는 여전히 견고해 보인다. 한편 3분기 화물 물동량은 2분기와 마찬가지로 역성장할 전망이다. 다만 성수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운임은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

항공업종 둘러싼 우려는 피크, 아시아나 주가에도 선반영

현재 항공업종의 투자심리는 원가부담 이상으로 수요의 둔화 가능성을 과도하게 우려하고 있다. 항공사들의 3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하향조정될 전망이다. 한편으로는 메르스 리스크나 일본 지진 등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악재가 터진 지금이 주가의 바닥으로 볼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과 저비용항공사 모두와 경쟁해야 하는 불리한 위치에 있고 단기실적 우려도 재무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중립을 유지한다. 반대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가장 낮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6A	5,764	256	49	251	NM	658	16.8	8.1	1.0	5.7	-
2017A	6,227	276	252	1,227	388.8	723	3.7	7.2	0.8	24.7	-
2018F	6,792	291	130	635	(48.2)	735	6.5	6.6	0.7	10.7	-
2019F	7,152	363	154	749	17.8	803	5.5	5.9	0.6	11.3	-
2020F	7,727	355	153	746	(0.4)	795	5.5	5.8	0.5	10.1	-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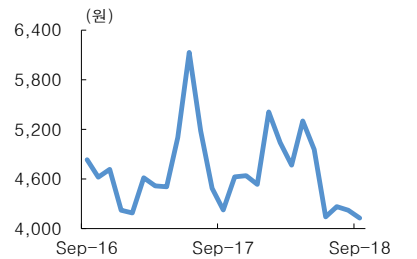
Stock Data

KOSPI(9/11)	2,283
주가(9/11)	4,125
시가총액(십억원)	847
발행주식수(백만)	205
52주 최고/최저가(원)	5,460/4,015
일평균거래대금(6개월, 백만원)	7,095
유동주식비율/외국인지분율(%)	66.5/11.2
주요주주(%)	금호산업 외 5인 33.5
	금호석유화학 12.0

주가상승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2.5)	(14.8)	(5.5)
KOSPI 대비(%p)	(2.5)	(7.6)	(2.3)

주가추이



자료: WISEfn

최고운

gowoon@truefriend.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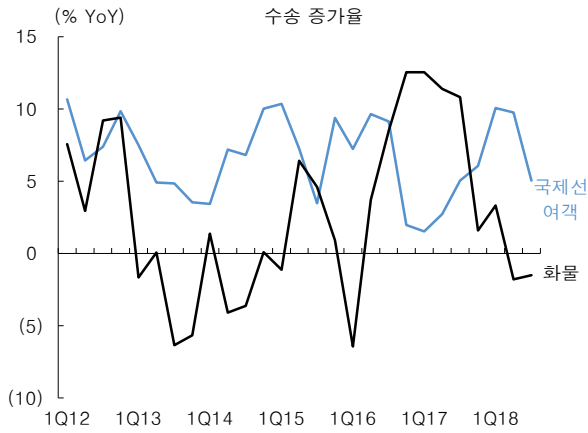
<표 1> 실적 전망

(단위: 십억원, %, % YoY)

	2017				2018F				연간			
	1Q	2Q	3Q	4Q	1Q	2Q	3QF	4QF	2016	2017	2018F	2019F
매출액	1,457	1,492	1,631	1,647	1,603	1,643	1,797	1,750	5,764	6,227	6,792	7,152
국내선(별도)	62	87	88	82	69	95	93	79	290	320	336	346
ASK(백만 km)	622	707	727	664	645	716	742	677	2,565	2,720	2,779	2,834
RPK(백만 km)	498	613	643	573	544	640	642	572	2,174	2,327	2,399	2,471
L/F(%)	80.0	86.7	88.5	86.4	84.4	89.5	86.6	84.5	84.8	85.6	86.3	87.2
Yield(원)	125.1	142.5	137.4	143.3	126.2	148.3	144.3	139.0	133.5	137.6	140.0	140.0
국제선(별도)	810	766	900	843	873	850	1,002	894	3,255	3,320	3,619	3,840
ASK(백만 km)	12,273	12,547	13,407	13,001	12,850	13,094	13,943	13,521	48,869	51,227	53,407	55,010
RPK(백만 km)	9,977	10,116	11,165	10,626	10,981	11,102	11,727	11,263	40,320	41,884	45,074	46,890
L/F(%)	81.3	80.6	83.3	81.7	85.5	84.8	84.1	83.3	82.5	81.8	84.4	85.2
Yield(원)	81.2	75.7	80.6	79.4	79.5	76.6	85.5	79.4	80.7	79.3	80.3	81.9
화물(별도)	280	318	320	386	318	338	347	413	1,105	1,305	1,416	1,488
AFTK(백만 km)	1,349	1,441	1,457	1,501	1,410	1,462	1,472	1,531	5,584	5,749	5,876	5,993
FTK(백만 km)	1,065	1,189	1,193	1,225	1,100	1,168	1,176	1,249	4,240	4,672	4,692	4,786
L/F(%)	78.9	82.5	81.9	81.6	78.0	79.8	79.9	81.6	75.9	81.3	79.9	79.9
Yield(원)	263.4	267.5	268.4	315.0	289.1	289.4	295.2	330.7	257.6	279.3	301.8	310.9
기타	304	320	322	336	344	360	355	363	1,113	1,283	1,422	1,478
매출액 증가율	6.5	8.5	4.8	12.5	10.0	10.1	10.2	6.2	4.0	8.0	9.1	5.3
국내선	(1.6)	11.0	6.3	26.2	10.3	8.7	4.8	(3.2)	0.3	10.3	4.9	3.0
ASK	(0.0)	9.5	10.7	3.4	3.6	1.2	2.0	2.0	(0.1)	6.0	2.2	2.0
RPK	2.5	9.5	12.9	6.6	9.3	4.4	(0.2)	(0.2)	10.4	7.0	3.1	3.0
L/F(%p)	2.0	(0.0)	1.7	2.6	4.4	2.8	(1.9)	(1.8)	8.1	0.8	0.8	0.8
Yield	(4.0)	1.4	(5.9)	18.4	0.9	4.0	5.0	(3.0)	(9.2)	3.1	1.8	0.0
국제선	0.1	0.4	(2.7)	11.4	7.7	10.9	11.3	6.0	4.4	2.0	9.0	6.1
ASK	0.5	6.0	6.7	6.1	4.7	4.4	4.0	4.0	3.7	4.8	4.3	3.0
RPK	1.5	2.7	5.0	6.1	10.1	9.7	5.0	6.0	6.9	3.9	7.6	4.0
L/F(%p)	0.8	(2.6)	(1.3)	(0.0)	4.2	4.2	0.8	1.6	2.5	(0.7)	2.6	0.8
Yield	(1.4)	(2.2)	(7.4)	5.0	(2.1)	1.1	6.0	0.0	(2.4)	(1.8)	1.3	2.0
화물	16.6	23.8	20.8	12.5	13.4	6.2	8.3	7.1	(3.4)	18.0	8.6	5.1
AFTK	3.3	3.7	2.5	(0.5)	4.5	1.5	1.0	2.0	2.2	3.0	2.2	2.0
FTK	12.5	11.4	10.8	1.6	3.3	(1.8)	(1.5)	2.0	5.5	10.2	0.4	2.0
L/F(%p)	6.5	5.7	6.2	1.7	(0.9)	(2.6)	(2.0)	0.0	2.3	5.3	(1.4)	0.0
Yield	3.6	11.1	9.0	10.7	9.8	8.2	10.0	5.0	(9.4)	8.4	8.1	3.0
기타	19.1	16.1	14.1	12.2	12.9	12.4	10.4	8.0	12.6	15.2	10.9	4.0
영업비용	1,431	1,449	1,512	1,559	1,538	1,605	1,689	1,669	5,507	5,951	6,502	6,788
증가율	7.3	7.7	7.7	9.4	7.5	10.8	11.7	7.1	0.2	8.1	9.3	4.4
유류비(별도)	357	338	357	386	398	438	506	485	1,239	1,437	1,826	2,010
증가율	23.7	15.1	9.6	16.3	11.6	29.6	41.8	25.5	(15.0)	16.0	27.1	10.0
인건비(별도)	185	181	187	188	190	188	193	192	720	741	763	786
임차료(별도)	144	151	156	157	154	157	163	160	574	608	634	671
정비비(별도)	94	113	125	104	100	103	112	104	381	436	419	431
기타	651	666	688	724	697	720	715	728	2,593	2,729	2,860	2,891
영업이익	26	43	119	88	64	38	108	80	256	276	291	363
증가율	(26.5)	48.7	(21.8)	119.3	144.4	(11.2)	(8.9)	(8.9)	456.6	7.6	5.4	25.0
영업이익률	1.8	2.9	7.3	5.4	4.0	2.3	6.0	4.6	4.5	4.4	4.3	5.1
세전이익	132	(102)	27	294	(5)	(79)	212	44	70	351	173	203
지배주주순이익	101	(75)	16	211	(6)	(51)	153	34	49	252	130	154
증가율	1.3	NM	(0.9)	NM	NM	NM	8.6	(0.8)	NM	4.1	(0.5)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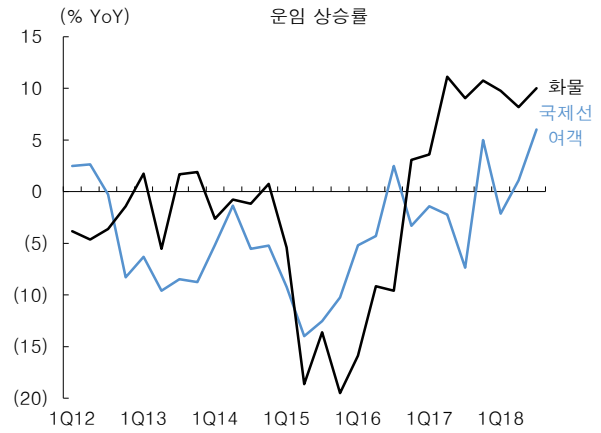
자료: 아시아나항공, 한국투자증권

[그림 1] 수송량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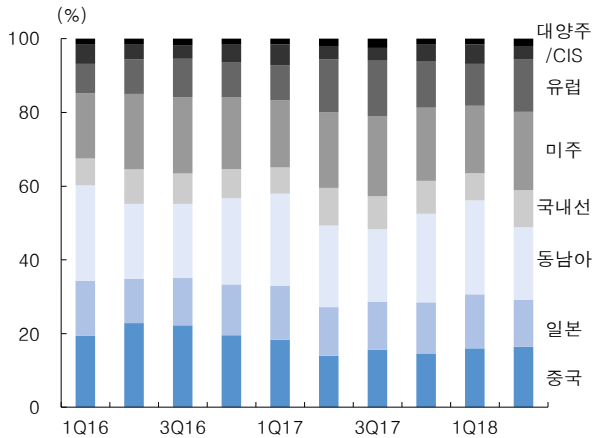
자료: 아시아나항공,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유류할증료 이상으로 운임이 상승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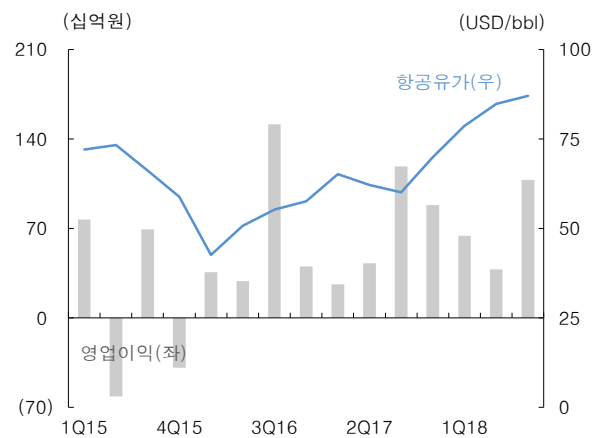
자료: 아시아나항공, 한국투자증권

[그림 3] 올해 상반기 일본 여객매출 비중은 14%



자료: 아시아나항공, 한국투자증권

[그림 4] 문제는 유가상승에 따른 비용부담



주: 항공유가는 1개월 후행
자료: 아시아나항공, 한국투자증권

기업개요 및 용어해설

아시아나항공은 우리나라 2대 국적항공사로 2017년 기준 국내 10개 도시와 해외 23개 국가, 65개 도시에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고 있음. 2017년 국내 항공시장에서 여객수 기준 국제선 점유율 17%, 국내선 점유율 18%를 차지함.

- RPK(Revenue Passenger Kilometers): 유상 여객수에 이동 거리를 곱한 값으로 항공산업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수송실적 지표
- ASK(Available Seat Kilometers): 판매 가능한 좌석수에 이동 거리를 곱한 값으로 항공산업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수송공급 지표
- FTK(Freight Tonne Kilometers): 유상 화물톤수에 이동 거리를 곱한 값으로 RPK와 같은 개념의 화물 수송실적 지표
- AFTK(Available Freight Tonne Kilometers): 운송할 수 있는 화물탑재중량에 이동 거리를 곱한 값으로 ASK와 같은 개념의 화물 수송공급 지표
- L/F(Load factor): 공급 대비 이용률로 RPK/FTK에서 ASK/AFTK를 나눈 값

재무상태표

(단위: 십억원)

	2016A	2017A	2018F	2019F	2020F
유동자산	1,197	1,221	1,235	1,336	1,443
현금성자산	271	276	204	250	27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22	514	561	590	638
재고자산	210	234	255	268	290
비유동자산	7,033	7,329	7,318	7,396	7,569
투자자산	460	342	265	279	301
유형자산	5,156	5,364	5,282	5,253	5,253
무형자산	246	262	286	301	326
자산총계	8,229	8,551	8,552	8,732	9,012
유동부채	3,274	3,544	3,377	3,313	3,369
매입채무및기타채무	921	952	1,039	1,094	1,182
단기차입금및단기사채	277	451	337	302	302
유동성장기부채	1,648	1,673	1,518	1,441	1,408
비유동부채	3,914	3,764	3,805	3,897	3,968
사채	725	758	802	823	823
장기차입금및금융부채	1,965	1,645	1,519	1,511	1,456
부채총계	7,187	7,308	7,183	7,209	7,337
지배주주지분	892	1,151	1,281	1,435	1,588
자본금	1,026	1,026	1,026	1,026	1,026
자본잉여금	1	1	1	1	1
기타자본	(96)	(84)	(84)	(84)	(84)
이익잉여금	(121)	155	286	440	593
비지배주주지분	150	92	88	88	87
자본총계	1,042	1,242	1,369	1,523	1,675

현금흐름표

(단위: 십억원)

	2016A	2017A	2018F	2019F	2020F
영업활동현금흐름	659	660	590	572	592
당기순이익	53	248	127	153	153
유형자산상각비	401	447	444	440	440
무형자산상각비	0	0	0	0	0
자산부채변동	12	37	7	(14)	(8)
기타	193	(72)	12	(7)	7
투자활동현금흐름	(55)	(655)	(315)	(427)	(484)
유형자산투자	(375)	(448)	(362)	(411)	(440)
유형자산매각	186	15	0	0	0
투자자산순증	372	11	106	21	15
무형자산순증	(7)	(6)	(24)	(15)	(24)
기타	(231)	(227)	(35)	(22)	(35)
재무활동현금흐름	(512)	(8)	(348)	(98)	(87)
자본의증가	50	(94)	0	0	0
차입금의순증	(561)	86	(351)	(99)	(88)
배당금지급	(0)	(0)	0	0	0
기타	(1)	0	3	1	1
기타현금흐름	(4)	8	0	0	0
현금의증가	88	5	(72)	47	20

주: K-IFRS (연결) 기준

손익계산서

(단위: 십억원)

	2016A	2017A	2018F	2019F	2020F
매출액	5,764	6,227	6,792	7,152	7,727
매출원가	4,909	5,341	5,842	6,099	6,628
매출총이익	854	886	951	1,052	1,099
판매관리비	598	610	660	689	744
영업이익	256	276	291	363	355
금융수익	9	3	4	5	6
이자수익	9	3	4	5	6
금융비용	144	173	175	200	195
이자비용	144	173	175	200	195
기타영업외손익	(76)	220	24	0	0
관계기업관련손익	24	25	28	35	37
세전계속사업이익	70	351	173	203	203
법인세비용	19	103	46	50	50
연결당기순이익	53	248	127	153	153
지배주주지분순이익	49	252	130	154	153
기타포괄이익	(18)	(5)	0	0	0
총포괄이익	35	242	127	153	153
지배주주지분포괄이익	31	246	130	154	153
EBITDA	658	723	735	803	795

주요투자지표

	2016A	2017A	2018F	2019F	2020F
주당지표(원)					
EPS	251	1,227	635	749	746
BPS	4,346	5,607	6,242	6,991	7,737
DPS	0	0	0	0	0
성장성(% YoY)					
매출증가율	4.0	8.0	9.1	5.3	8.0
영업이익증가율	456.6	7.6	5.4	25.0	(2.3)
순이익증가율	NM	411.2	(48.2)	17.8	(0.4)
EPS증가율	NM	388.8	(48.2)	17.8	(0.4)
EBITDA증가율	39.4	9.9	1.7	9.3	(1.0)
수익성(%)					
영업이익률	4.5	4.4	4.3	5.1	4.6
순이익률	0.9	4.0	1.9	2.1	2.0
EBITDA Margin	11.4	11.6	10.8	11.2	10.3
ROA	0.6	3.0	1.5	1.8	1.7
ROE	5.7	24.7	10.7	11.3	10.1
배당수익률	-	-	-	-	-
배당성향	0.0	0.0	0.0	0.0	0.0
안정성					
순차입금(십억원)	4,312	4,207	3,925	3,777	3,665
차입금/자본총계비율(%)	443.0	364.2	304.8	267.7	238.0
Valuation(X)					
PER	16.8	3.7	6.5	5.5	5.5
PBR	1.0	0.8	0.7	0.6	0.5
EV/EBITDA	8.1	7.2	6.6	5.9	5.8

[공매도, 수급] 양날의 검

주식시장에선 다양한 전략 존재. 배당이익과 시세차익 등 목적에 따라 상이 대부분 시세차익에 좀 더 집중. 여기엔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전략도 포함 공매도 전략엔 리스크 상존. 시장 변화시 오히려 숏커버링이 진행될 수 있음

숏커버링 가능성을 점검할 때

주식시장엔 다양한 투자자들이 존재한다. 이들의 목적은 하나다. 주식투자로 돈을 버는 것이다. 전략은 여러 개다. 먼저 배당에 집중하는 전략이다.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해 정기적으로 배당을 받는 것이다. 다만 단점이 있다. 시간 소요가 상당하고 투자기간에 비해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대다수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린다. 바로 단기에 고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세차익 추종 전략이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핵심이다. 고성장 종목에 투자하고 일정 시간 뒤에 매수가보다 높게 팔아 이익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주식 매매 대부분이 이런 목적을 갖는다.

다만 여기엔 한 가지 제약이 있다. 지금보다 좋아질 종목에만 해당된다는 점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빠지는 종목에는 통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방법이 아주 없지는 않다. 공매도를 통해 약세에 베팅할 수 있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만한 주식을 타인에게 빌려 매도하고, 추후 주가가 하락하면 재매수한 주식을 대여자에게 반납한 뒤 남은 차익을 먹는 방법이다.

물론 공매도는 방법이 복잡한 만큼 수익 확보에 상당한 리스크가 뒤따른다. 일단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하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요즘처럼 개별 종목이 널뛰는 상황에선 그럴 확률이 더욱 높다. 만약 주가 하락으로 수익 확보에 성공해도 대차 수수료에 의해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수수료가 시세차익보다 높을 경우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동안 한국 증시에서 공매도는 꾸준히 발생했다. 알다시피 공매도의 주요 타깃은 헬스케어였고, 그중 셀트리온 그룹이 공매도 명단에 자주 오르내렸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현재 셀트리온의 공매도잔량은 60일 평균 거래량의 17배 수준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제약은 각각 10배, 6배다. 이들 외에도 공매도 잔고가 일 평균 거래량의 5배를 넘는 종목이 27개나 더 있다. 향후 시장 상황이 변화해 공매도가 어려워지면, 공매도 잔고가 많이 쌓인 종목부터 숏커버링이 진행되지 않을까? 특히 주가의 이격도가 벌어진 종목이라면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김대준

daejun.kim@truefriend.com

〈표 1〉 공매도 압력에 노출되어 있는 종목 30선

(단위: %, 배)

코드	종목	시장	이격도	9월 수익률	공매도잔량/ 일평균거래량	공매도잔량/ 유통주식수
A009240	한샘	코스피	88.5	4.8	17.3	11.9
A068270	셀트리온	코스피	98.5	1.7	16.7	15.1
A251270	넷마블	코스피	81.0	(3.4)	14.9	14.9
A282330	BGF리테일	코스피	111.9	13.4	11.3	5.2
A065620	제넥스	코스닥	135.4	27.9	10.6	5.1
A071840	롯데하이마트	코스피	90.6	(4.3)	10.6	5.5
A091990	셀트리온헬스케어	코스닥	96.6	2.5	10.4	18.4
A042670	두산인프라코어	코스피	98.1	(0.8)	10.3	14.8
A108670	LG하우시스	코스피	106.7	8.8	9.9	5.0
A034020	두산중공업	코스피	100.2	4.6	9.7	8.4
A034230	파라다이스	코스닥	106.7	(0.2)	8.6	15.9
A035720	카카오	코스피	98.6	(6.8)	8.1	7.0
A028670	팬오션	코스피	102.1	(1.2)	8.0	5.4
A011210	현대위아	코스피	100.0	1.8	8.0	9.5
A073240	금호타이어	코스피	88.4	(1.1)	7.8	6.7
A068240	다원시스	코스닥	113.3	4.1	7.6	8.7
A207940	삼성바이오로직스	코스피	109.2	0.8	7.5	9.7
A006360	GS건설	코스피	114.3	9.8	7.5	9.6
A034220	LG디스플레이	코스피	97.6	(5.2)	7.3	8.8
A084990	바이로메드	코스닥	102.1	(6.0)	7.2	9.6
A192820	코스맥스	코스피	101.0	(1.3)	6.9	7.6
A000120	CJ대한통운	코스피	104.4	7.1	6.8	6.4
A237690	에스티팜	코스닥	94.3	(4.0)	6.6	8.3
A036490	SK머티리얼즈	코스닥	105.1	2.9	6.6	6.1
A068760	셀트리온제약	코스닥	101.1	(0.4)	6.0	6.7
A267260	현대일렉트릭	코스피	100.1	7.3	6.0	5.3
A204320	만도	코스피	90.8	(2.9)	5.7	7.1
A069620	대웅제약	코스피	102.4	(3.2)	5.5	6.0
A01245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코스피	113.3	8.2	5.1	5.0
A012630	HDC	코스피	104.9	9.2	5.0	12.8

주: WMI500 기업 기준. 공매도잔량은 9월 7일 기준. 음영은 이격도(수정주가/60일평균주가)가 100% 이하인 종목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바이오주 강세에 힘입어 코스닥 이틀째 상승

- 뉴욕증시는 G2간 무역분쟁 격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제품 발표를 앞둔 애플을 비롯한 기술주 반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 소폭 오름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도세를 이어가며 주가 상승을 저지한 가운데 금융투자자와 개인 매수세로 장 막판 상승전환하기도 했으나 등락을 거듭한 끝에 약보합세로 마감. 코스닥은 개인의 차익실현 매도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 투신을 비롯한 기관과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영국 화장품유통 전문업체와의 계약 체결로 120조원 규모의 유럽 화장품 시장에 본격 진출한 현대바이오가 초강세를 보였으며, 담철곤 회장을 둘러싼 횡령 혐의 의혹에 대해 회사측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며 오리온이 7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9% 가까이 급등. 시스템인 변형 항체 기술 관련 특허권 취득한 애플클론이 이틀 연속 강세를 보였으며, 국내 온라인 원스톱 솔루션 1위로 향후 변화하는 온라인 소비 트렌드와 동반해 안정적인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는 분석에 카페24가 견조한 오름세를 보였음. 또한, 중국 환경규제로 인한 수요 증가 등 업황 호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제지주가 강세를 보였으며, 미 FDA로부터 면역항암제 '이문셀-엘씨'에 대한 제3차 임상 허가 의약품 지정 승인을 획득한 녹십자셀을 비롯해 그룹주가 동반 초강세를 보임. 셀트리온의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에 대한 미 FDA 자문위원회 개최 소식에 셀트리온그룹주도 동반 강세를 보임. 반면, 반도체 고점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으로 미 반도체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도 동반 하락.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유력하다는 보도에 CJ헬로는 재료노출로 5% 이상 급락세를 보임

종목/테마	내용
현대바이오(048410) ▶5,960 (+18.73%)	유럽 화장품 시장 진출 소식에 초강세 - 영국의 화장품유통 전문기업인 '뷰티베이트'와 비타브리드 제품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해, 유럽 화장품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는 소식에 초강세 - 유럽 화장품 시장은 연간 120조원 규모로 전세계 시장의 32%에 달하며, 이중 영국 코스메틱 시장은 연간 20조 규모로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음. 비타브리드는 이미 '브라운토마스' 및 '셀프릿지' 백화점에 입점이 확정됐으며 영국 최대 온라인 뷰티 플랫폼 '컨트뷰티'에도 론칭할 예정
기계주	남북 경험 시 수혜 기대감에 강세 -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경험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는 가운데 러시아가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 프로젝트 논의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며 수혜 기대감에 강세 - 디케이락(105740, +26.44%), 서연탐메탈(019770, +8.85%), 토탉(108230, +7.00%), 나노메딕스(074610, +3.98%), 화성밸브(039610, +3.96%), 우진(105840, +3.54%), 비엠티(086670, +3.39%), 현대중공업(009540, +2.42%) 등 강세
제지주	업황 호조 지속 기대감에 강세 - 펄프와 골판지 업황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강세. 9월 수입 펄프 고시가가 900달러/톤을 기록해 지난 6월 이후 4개월째 현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 펄프 가격 또한 사상 최고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대양제지(006580, +7.06%), 아세아제지(002310, +5.26%), 대림제지(017650, +4.13%), 울촌화학(008730, +3.42%), 삼보판지(023600, +3.42%), 삼보판지(023600, +3.42%) 등 강세
녹십자그룹주	'이문셀-엘씨', 미 FDA 희귀의약품 승인 소식에 강세 - 미 FDA가 면역항암제 '이문셀-엘씨'를 제3차 임상 허가 의약품으로 지정했다는 소식에 강세. '이문셀-엘씨'는 2007년부터 국내 시판허가를 획득해 판매 중 - 녹십자셀(031390), 녹십자엠에스(142280, 이상 상한가), 녹십자랩셀(144510, +12.27%), 녹십자홀딩스(005250, +3.45%), 녹십자(006280, +1.79%)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2주 신고가 및 상한가

종목	내용
영원무역(111770) ▶40,050 (+2.43%)	- 하반기 성수기 진입에 따른 실적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단기 유망종목: 에스원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에스원 (012750)	85,900 (+1.9%)	84,300 (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 편의점 확대 시 업무 지능화 관리 수요 증가에 따라 점포당 관리 수익 상승에 따른 수혜 전망 - 현재 10개의 무인주차장을 2019년까지 50개로 확대 운영할 전망 -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탄력근무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유연근무제 등 근무형태 다변화에 따라 근태관리 솔루션을 도입하는 업체 증가에 따른 수혜 전망
와이솔 (122990)	18,800 (+7.1)	17,550 (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G 통신 서비스의 개화로 기존 2GHz 이하에 이용됐던 표면탄성필터(SAW)에 더해 고주파를 선별하는 벌크탄성파필터(BAW)가 추가되어 동사 필터 사업부문의 수혜 전망 - SK텔레콤의 IoT 전용망 모듈 납품자로 선정됨에 따라 커넥티드 수요 증가로 IoT모듈 사업부문의 수혜 및 모듈 신사업에서의 성장 기대
디지털대성 (068930)	4,445 (-1.3)	4,505 (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에서의 르네상스리닝 콘텐츠 독점 판매권 확보로 4분기부터 매출 본격화 전망 - 2012년 비상예유 인수 이후 현금성자산을 이용한 M&A를 통해 지속적인 실적 개선 기대 - 브랜드파워를 기반으로 온오프라인 실적 성장으로 올해 최대 실적 전망
정상제이엘에스 (040420)	7,360 (+2.4)	7,190 (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성이 높은 온라인 부문과 해외 교재 매출이 증가하며 지속적인 외형성장 전망 - 수학부문에서의 외형 확대를 통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 기대 - 배당수익률 6%에 육박하는 고배당 매력 보유
한국전자금융 (063570)	14,150 (+24.7)	11,350 (6/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무인자동화기기와 무인주차장의 수요 증가 전망 - ATM 관리 과점 사업자로 ATM기기 감소 추세에도 은행의 아웃소싱 비중이 낮아 향후 동사의 시장 확대 가능성 유효 - 국내 1위 CD VAN 사업자인 BGF핀링크를 흡수합병하고 매출이 확대됨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확대 전망
매일유업 (267980)	86,200 (-4.1)	89,900 (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수익 제품 비중 상승, 원유 손실 축소로 유가공 마진 개선 지속 - 중국향 분유 수출은 바닥 통과 후 점진적인 개선 진행 중 - 작년 2분기는 사드 영향으로 수출 분유의 기저가 낮아서 2분기 실적 개선 예상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삼양패키징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원, 배)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8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삼양패키징 (122990)	17,650 (-9.7)	19,550 (8/17)	356	40	25	1,765	10.7
- 판매단가 인상과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영업마진의 점진적 개선 전망 - 19년 1분기까지 기저효과가 지속되며 실적 모멘텀이 이어질 전망 - 연이은 고부가 제품 증설 및 가동에 따라 고속 성장기 진입 전망							
현대백화점 (069960)	97,100 (-0.2)	97,300 (8/2)	1,880	406	287	12,705	7.5
- 명품 소비 증가로 기존점 매출액이 안정적인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 12월 천호점 그랜드 오픈 및 11월 무역센터점 면세점 오픈 등에 따라 이익 모멘텀 확대 전망 - 본업 호조와 신규 사업으로 이익 모멘텀을 확보하였지만 여전히 저평가 상태로 밸류에이션 매력 상존							
하츠 (066130)	5,480 (+18.9)	4,610 (7/4)	112	7	6	495	10.3
- 기존 공기청정기 시장과 다른 환기청정기 시장 공략을 위해 공기청정 기능과 환기기능을 동시에 갖춘 환기청정기 제품 개발 - B2B 고객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B2C 공략을 위해서 하츠몰, 하츠앱, 소셜커머스, 하이마트로 판매 채널 확장 -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실내 공기질 종합 관리 기업인 동시에 대한 수혜 전망							
신대양제지 (016590)	100,500 (+29.5)	77,600 (6/28)	688	103	76	18,962	5.3
-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265억원(+25.6% QoQ, +419% YoY)으로 전년 동기대비 5배가 넘는 이익 창출 예상 - 미국의 수출 지역인 중국과 동남 아시아 시장으로 한국 골판지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 상존 - 지배순이익이 peer그룹인 무림P&P(160억원) 대비 불과 5% 적지만 시가총액은 무림P&P의 절반에 불과한 염가 구간							
포스코강판 (058430)	24,000 (+6.2)	22,600 (5/30)	944	25	23	3,757	6.2
- 냉연업체들의 가격 인상에 따른 스프레드 반등 예상 - 생산라인 증설에 따라 3분기부터 컬러강판 생산능력 증가 전망 - 냉연 스프레드 사이클의 저점으로 판단되며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삼성전기 (009150)	146,500 (+26.8)	115,500 (4/13)	8,016	702	427	5,656	28.2
-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부품간 전자파 간섭을 막아주는 부품) 호황이 구조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수혜국면 지속 전망 - 삼성전자의 듀얼카메라 채택 비중이 높아지면서 영업이익 증가세 지속 전망 - 내년 갤럭시S10에 3D센싱카메라가 탑재된다면 이와 관련한 모듈 제작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음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삼성전기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삼양패키징 발행주식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대표 주관업무를 수행한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국내외 금융시장 및 수급 동향

한국시장 주요 지표

한국 주요지수	9/12(수) 증가	등락률(%)			
		1D	1W	1M	YTD
KOSPI	2,282.92	(0.01)	(0.39)	0.01	(7.48)
KOSPI200	292.35	(0.04)	(0.88)	(0.44)	(9.97)
대형주	2,175.27	(0.06)	(0.91)	(0.78)	(10.08)
중형주	2,729.59	0.24	2.04	2.77	(0.20)
소형주	2,274.01	0.18	1.69	5.46	11.83
KOSDAQ	826.33	0.74	0.77	5.29	3.50
KOSDAQ150	1,400.28	1.49	1.66	8.52	(0.96)

수급	9/12(수)	1D	1W	1M	YTD
거래량	KOSPI	329	347	301	417
(백만 주, 기간 평균)	KOSDAQ	630	669	630	881
거래대금	KOSPI	6,223	5,903	5,270	6,799
(십억 원, 기간 평균)	KOSDAQ	5,452	4,495	3,929	5,506

(단위: %, bp)

금리	9/12(수)	1D	1W	1M	YTD
국고채 3년물	1.92	1.00	0.20	(11.80)	(21.20)
국고채 5년물	2.09	1.50	(1.70)	(17.50)	(25.70)
국고채 10년물	2.27	1.80	(3.90)	(22.60)	(19.70)
회사채 3년(AAA-)	2.35	1.00	0.20	(9.10)	(19.80)
회사채 3년(BBB-)	8.35	1.00	0.20	(9.50)	(43.70)

(단위: 원, %)

외환	9/12(수)	1D	1W	1M	YTD
원/달러	1128.5	(0.28)	(0.66)	0.49	(5.41)
원/100엔	1011.8	(0.41)	(0.71)	1.36	(6.42)
원/유로	1306.6	(0.05)	(0.63)	(1.14)	(2.34)
원/위안	164.2	(0.23)	(0.02)	0.19	(0.12)

업종 지수	9/12(수)	등락률(%)			
		1D	1W	1M	YTD
KRX 업종 지수					
자동차	1,491.52	0.16	0.48	0.20	(14.28)
반도체	2,346.81	(0.91)	(4.49)	(3.26)	(15.70)
헬스케어	4,251.10	2.33	2.08	8.67	10.55
은행	832.04	0.67	1.33	(1.18)	(11.19)
에너지화학	2,477.24	0.14	0.05	(2.20)	(10.38)
철강	1,672.28	0.25	0.28	(2.07)	(18.54)
방송통신	1,078.34	1.49	3.49	3.89	5.05
건설	716.01	(0.46)	7.27	9.14	27.66
증권	661.88	(0.74)	0.59	3.98	(7.11)
기계장비	592.86	0.91	5.14	6.43	10.77
보험	1,575.68	(0.25)	(0.39)	(6.52)	(18.62)
운송	559.94	0.29	3.74	1.05	(3.62)
유틸리티	1,220.13	0.62	2.75	(0.17)	3.61

업종 지수	9/12(수)	1D	1W	1M	YTD
KOSDAQ150					
기술주	1,669.58	2.01	0.94	7.82	(2.67)
소재	1,561.09	(0.70)	2.10	15.08	(0.59)
산업재	266.36	(1.10)	0.78	5.50	(14.86)
필수소비재	814.81	0.33	4.60	7.39	(20.25)
자유소비재	1,425.11	1.09	3.17	5.36	21.89
정보기술	621.31	(0.51)	(2.30)	(2.09)	(18.11)
생명기술	4,774.45	3.28	2.41	12.96	1.35
문화기술	2,596.05	2.53	3.36	13.35	16.10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분	개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국가, 지자체)	기타	
유가증권	매수	3,461	1,321	1,444	438	189	156	163	9	171	318	78
	매도	3,273	1,737	1,249	217	230	184	170	15	159	274	46
	순매수	188	(415)	195	221	(40)	(28)	(6)	(6)	12	43	32
	2018년 9월 누계	1,124	(1,841)	365	534	(123)	(113)	(31)	(29)	61	65	352
	2018년 누계	7,898	(3,601)	(5,907)	(2,895)	(746)	122	(872)	(234)	(671)	(611)	1,610
코스닥	매수	4,661	477	309	70	33	61	102	2	30	10	31
	매도	4,778	412	252	78	32	37	64	3	23	15	35
	순매수	(117)	65	57	(7)	1	23	38	(0)	7	(5)	(4)
	2018년 9월 누계	51	210	(135)	(236)	28	93	(8)	2	20	(35)	(126)
	2018년 누계	2,929	(155)	(630)	37	154	463	(1,054)	(122)	(188)	79	(2,144)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단위: 억원)

	기관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업종	건강관리	903	IT하드웨어	(390)	건강관리	397	반도체	(2,371)
	조선	191	IT가전	(87)	통신서비스	143	IT하드웨어	(815)
	통신서비스	182	비철, 목재 등	(33)	화학	111	철강	(380)
	소프트웨어	170	미디어, 교육	(29)	조선	39	건설, 건축관련	(232)
	반도체	168	화장품, 의류, 완구	(22)	은행	15	자동차	(171)
종목	셀트리온	916	SK하이닉스	(423)	셀트리온	186	삼성전자	(1,579)
	삼성전자	577	삼성전기	(336)	LG유플러스	121	SK하이닉스	(684)
	KODEX 200	427	KODEX 레버리지	(154)	삼성바이오로직스	85	삼성전기	(601)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262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	(115)	필룩스	70	KODEX 200	(436)
	POSCO	148	아모레퍼시픽	(107)	아모레퍼시픽	53	POSCO	(366)
	SK이노베이션	108	LG전자	(87)	대한유화	52	LG이노텍	(142)
	신한지주	98	대한유화	(83)	우리은행	51	LG전자	(120)
	오리온	96	일진머티리얼즈	(66)	맥쿼리인프라	51	SK이노베이션	(98)
	현대중공업	94	CJ제일제당	(63)	호텔신라	47	삼성SDI	(86)
	카카오	91	녹십자홀딩스	(54)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45	넷마블	(81)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단위: 억원)

	기관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업종	건강관리	494	비철, 목재 등	(121)	건강관리	993	IT하드웨어	(116)
	미디어, 교육	175	화학	(81)	소프트웨어	144	조선	(78)
	소매(유통)	160	IT하드웨어	(80)	비철, 목재 등	78	반도체	(77)
	디스플레이	63	반도체	(75)	미디어, 교육	67	자동차	(77)
	조선	39	기계	(37)	건설, 건축관련	25	필수소비재	(65)
종목	셀트리온헬스케어	265	포스코켄텍	(119)	신라젠	746	에이치엘비	(67)
	CJ ENM	171	에코프로	(39)	카페24	131	CJ ENM	(65)
	신라젠	153	대주전자재료	(29)	포스코켄텍	68	에스엠코어	(27)
	스튜디오드래곤	101	와이솔	(23)	녹십자셀	55	네이처셀	(26)
	SK머티리얼즈	48	하나머티리얼즈	(21)	바이로메드	46	뉴프라이드	(25)
	에스엠	42	엘앤에프	(19)	셀트리온헬스케어	46	이지바이오	(24)
	에이치엘비	37	풀어비스	(14)	한스바이오메드	31	에코프로	(20)
	한국전자금융	34	원익IPS	(14)	풀어비스	30	오성첨단소재	(19)
	바이로메드	31	녹십자랩셀	(14)	녹십자랩셀	28	대주전자재료	(19)
	셀트리온제약	27	비에이치	(14)	에스엠	27	케이피엠테크	(19)

시가총액 상위 종목 등락률

KOSPI (단위: 십억원, 원, %)

종목명	시가총액	증가	1D	YTD
삼성전자	285,981	44,550	(1.11)	(12.58)
SK하이닉스	54,673	75,100	(1.96)	(1.83)
셀트리온	35,738	285,000	3.83	28.90
삼성바이오로직스	30,932	467,500	0.21	26.01
현대차	27,670	129,500	1.17	(16.99)
POSCO	25,415	291,500	(0.17)	(12.33)
LG화학	24,248	343,500	0.73	(15.19)
NAVER	24,063	730,000	0.55	(16.09)
삼성물산	23,711	125,000	(0.79)	(0.79)
SK텔레콤	22,124	274,000	0.92	2.62

KOSDAQ (단위: 십억원, 원, %)

종목명	시가총액	증가	1D	YTD
셀트리온헬스케어	13,462	95,800	3.34	(11.79)
신라젠	5,907	84,700	11.15	(9.41)
CJ ENM	5,405	246,500	3.66	6.71
에이치엘비	4,433	115,600	(0.69)	199.09
나노스	4,197	8,550	11.33	267.74
메디톡스	3,938	696,200	0.90	43.58
포스코켄텍	3,857	65,300	(2.54)	64.07
바이로메드	3,672	230,100	3.28	40.91
스튜디오드래곤	3,093	110,300	4.06	69.69
풀어비스	3,084	239,500	(2.96)	(3.27)

Global Asset Monitor

글로벌 주식		(단위: %)				
구분	지역/국가	증가	1D	1W	1M	YTD
지역	MSCI 세계	514.03	0.12	(0.41)	(0.31)	0.20
	MSCI 선진국	2,147.67	0.23	(0.24)	0.37	2.10
	MSCI 신흥국	1,003.33	(0.78)	(1.80)	(5.56)	(13.39)
DM	S&P500	2,887.89	0.37	(0.30)	1.93	8.01
	Dow Jones	25,971.06	0.44	0.07	2.60	5.06
	Nasdaq	7,972.47	0.61	(1.47)	1.70	15.49
	Russell 2000	1,718.40	0.05	(0.86)	1.87	11.91
	영국 FTSE 100	7,283.77	0.14	(1.35)	(5.00)	(5.26)
	프랑스 CAC	5,324.71	0.77	1.23	(1.66)	0.23
	독일 DAX 30	12,025.94	0.47	(0.12)	(3.21)	(6.90)
	스페인 IBEX	9,282.10	(0.02)	(0.21)	(3.33)	(7.58)
	일본 니케이	22,604.61	(0.27)	0.11	1.37	(0.70)
	홍콩 항셱	26,345.04	(0.29)	(3.30)	(7.13)	(11.95)
EM	코스피	2,282.92	(0.01)	(0.39)	0.01	(7.48)
	코스닥	826.33	0.74	0.77	5.29	3.50
	중국 상해종합	2,656.11	(0.33)	(1.78)	(4.98)	(19.69)
	홍콩 H지수	10,238.77	(0.91)	(3.82)	(6.44)	(12.56)
	인도 Sensex	37,671.63	0.69	(0.91)	(0.52)	10.61
	베트남 VN	987.01	0.20	1.92	1.91	0.28
	인도네시아 JCI	5,810.51	(0.35)	(1.61)	(4.39)	(8.58)
	러시아 RTS	1,063.46	0.72	(0.51)	0.62	(7.88)
	브라질 Bovespa	74,656.51	(2.33)	(2.02)	(2.43)	(2.28)
	멕시코 Mexbol	48,895.80	0.10	0.02	1.06	(0.93)
글로벌 업종	에너지	177.36	0.38	(0.31)	(1.13)	1.66
	소재	191.30	0.16	(1.68)	(4.61)	(11.35)
	산업재	268.97	(0.06)	(0.63)	(0.93)	(7.97)
	경기소비재	248.34	0.10	(0.32)	(0.81)	(6.37)
	필수소비재	301.98	(0.03)	(0.27)	0.25	0.80
	헬스케어	592.43	0.00	(0.99)	1.23	12.17
	금융	168.71	(0.11)	(1.08)	(1.66)	(7.32)
	IT	416.89	(0.06)	(0.47)	2.90	14.72
	통신서비스	167.40	(0.06)	1.05	0.38	(5.52)
	유틸리티	166.28	(0.19)	0.22	0.27	(2.57)

글로벌 환율		(단위: %)				
구분	지수/국가	증가	1D	1W	1M	YTD
지수	달러 인덱스	95.18	(0.07)	(0.01)	(1.22)	3.32
	무역가중 달러 인덱스	126.52	(0.05)	0.26	1.88	6.26
미주	브라질	4.15	(1.64)	0.17	(6.48)	(20.24)
	멕시코	19.14	0.26	1.07	(0.09)	2.73
아시아	한국	1,128.50	(0.28)	(0.66)	0.49	(5.41)
	일본	111.51	0.11	0.02	(0.73)	1.06
	중국	6.87	0.04	(0.59)	0.31	(5.29)
	대만	1.40	0.01	1.02	2.10	9.63
유럽	유로존	1.16	(0.20)	(0.40)	1.52	(3.52)
	영국	1.30	(0.04)	0.95	2.01	(3.59)
	러시아	69.47	(0.08)	(1.80)	(2.79)	(16.95)

주: 달러 대비

글로벌 채권		(단위: bp)				
지역	국가	증가	1D	1W	1M	YTD
미주	미국	2.96	(1.29)	6.04	8.94	55.72
	캐나다	2.34	5.30	10.40	3.70	29.40
	브라질(USD)	12.46	17.90	(6.70)	61.30	220.40
유럽	멕시코	8.10	0.30	5.10	33.80	43.80
	독일	0.42	(1.50)	3.50	9.80	(1.20)
	영국	1.49	(1.10)	4.70	24.70	29.90
아시아	프랑스	0.72	(1.60)	0.40	5.20	(6.30)
	이탈리아	2.95	0.30	1.10	(4.70)	93.00
	러시아	5.11	(6.40)	8.30	(2.90)	123.60
	한국	2.27	1.80	(3.90)	(22.60)	(19.70)
인도	일본	0.11	(0.20)	(0.20)	1.20	6.50
	중국	3.68	0.40	5.20	12.20	(22.30)
	호주	2.59	0.50	3.60	(0.30)	(4.40)
	인도	8.19	0.50	15.70	43.20	86.00

원자재		(단위: %, USD/oz, bu, MT)				
구분	지수/상품	증가	1D	1W	1M	YTD
지수	S&P 원자재 지수	467.28	1.03	0.82	1.99	5.62
	LMEX 지수	2,833.40	(1.54)	(1.21)	(5.78)	(17.13)
	CRB 지수	411.55	(0.50)	0.08	(2.45)	(4.81)
에너지	원유(WTI)	69.80	0.79	1.57	3.21	15.52
	원유(Brent)	79.28	0.28	2.60	8.89	18.56
	천연가스	2.84	0.35	1.54	(3.60)	(3.89)
금속	금	1,195.20	(0.13)	(0.08)	(1.31)	(8.71)
	은	14.04	(0.12)	(0.59)	(8.24)	(18.14)
	구리	5,859.00	(0.86)	0.76	(5.35)	(19.15)
	아연	2,311.00	(2.94)	(4.33)	(9.27)	(30.37)
농산물	알루미늄	2,044.00	(2.43)	(0.87)	(2.90)	(9.88)
	S&P 농산물 지수	283.47	(0.86)	0.26	(3.09)	0.47
	옥수수	365.75	(0.27)	0.14	(1.61)	(4.75)
	밀	522.50	0.72	0.14	(8.25)	8.40
대두	827.75	(0.48)	(1.22)	(3.95)	(15.17)	

변동성		(단위: %)				
구분	지수	증가	1D	1W	1M	YTD
미국	VIX	13.05	(1.29)	(6.18)	(0.84)	18.21
유럽	VSTOXX	15.39	(2.49)	(10.96)	1.86	13.93
한국	VKOSPI	12.01	(2.28)	(4.68)	(1.07)	(0.41)

한 눈에 보는 매크로 일정

월	화	수	목	금
3	4	5	6	7
韓> 8월 수출 YoY (8.7%, 10.2%, 6.2%) 유럽> 8월 마켓 유로존 제조업 PMI (54.6, 54.6, 54.6) 中> 8월 차이신 제조업 PMI (50.6, 50.7, 50.8) 日> 2Q 자본지출 YoY (12.8%, 6.5%, 3.4%)	韓> 2Q GDP SA QoQ (0.6%, 0.7%, 0.7%) 8월 CPI YoY (1.4%, 1.4%, 1.5%) 美> 연준 애반스 연설 8월 마켓 제조업 PMI (54.7, 54.5, 54.5) 7월 건설지출 MoM (0.1%, 0.4%, 1.1%)	美> 2,000억 달러 중국산 수입품 관세에 대한 공청회 기한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0.1%, n/a, -1.7%) 7월 무역수지 (-50.1, -50.2, -45.7)	美> 연준 윌리엄스 연설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203, 213, 213) 7월 제조업수주 (-0.8%, -0.6%, 0.7%) 7월 내구재주문 (-1.7%, -1.7%, -1.7%)	美> 8월 비농업고용자수 변동(천명) (201, 190, 157) 8월 실업률 (3.9%, 3.8%, 3.9%) 유럽> 2Q GDP SA YoY (2.1%, 2.2%, 2.2%)
10	11	12	13	14
유럽> 스웨덴 총선(9일) 日> 2Q GDP 연간화 SA QoQ (3.0%, 2.9%, 1.9%) 7월 BoP 경상수지(십억엔) (2009.7, 1893.2, 1175.6)	美> 7월 도매재고 MoM (0.6%, 0.7%, 0.7%) 유럽> 9월 ZEW 서베이 예상 (-7.2, n/a, -11.1) 日> 7월 3차 산업지수 MoM (0.1%, 0.1%, -0.6%)	韓> 8월 실업률 SA (4.2%, 3.8%, 3.8%) 美> 연준 베이지북 공개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n/a, n/a, -0.1%) 8월 PPI 최종수요 MoM (n/a, 0.2%, 0.0%)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210, 203) 8월 CPI MoM (n/a, 0.3%, 0.2%) 유럽> ECB 통화정책회의 (n/a, -0.4%, -0.4%) 日> 8월 PPI YoY (n/a, 3.1%, 3.1%) 7월 핵심기계수주 MoM (n/a, 5.5%, -8.8%)	美> 8월 소매판매 추정 MoM (n/a, 0.4%, 0.5%) 8월 광공업생산 MoM (n/a, 0.3%, 0.1%) 9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n/a, 96.8, 96.2) 中> 8월 광공업생산 YoY (n/a, 6.1%, 6.0%) 日> 7월 광공업생산 MoM (n/a, n/a, -0.1%)
17	18	19	20	21
유럽> 8월 CPI YoY (n/a, n/a, 2.1%)	韓> 3차 남북정상회담	美>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n/a, n/a, n/a) 8월 주택착공건수(천건) (n/a, n/a, 1168) 日> BOJ 통화정책회의 (n/a, n/a, -0.1%)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n/a, n/a) 8월 선행지수 (n/a, n/a, 0.6%) 8월 기준주택매매(백만건) (n/a, n/a, 5.34) 유럽> 9월 소비자기대지수 (n/a, n/a, -1.9)	美> 9월 마켓 제조업 PMI (n/a, n/a, 54.7) 유럽> 9월 마켓 제조업 PMI (n/a, n/a, 54.6) 日> 8월 전국 CPI YoY (n/a, n/a, 0.9%) 7월 전체산업 활동지수 MoM (n/a, n/a, -0.8%)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